

### 독자의견



River & Culture

## 이 세상 하나뿐인 수영장

박기찬 | 경북대학교 농업토목공학과 재학생

4대 문명 발상지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그건 바로 모두 큰 하천 주변에서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인간은 물 없이 살수 없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물을 마시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다. 물은 우리의 삶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그렇다면 물의 근원은 어디일까? 물은 순환하기 때문에 정확히 근원을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 생활 가장 가까이 물을 접할 수 있는 곳이 바로 하천이 아닐까?



내가 태어나고 자란 나의 고향은

주왕산국립공원과 주산지로

유명한 경북 청송이다. 공기 좋고,

물 맑아 오염이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는 그런 청정

지역이다. 어린시절

나는 여름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렸다.

워낙 시골인지라 변변한 놀이터도 하나 없었고, 수영장과 아이스링크는

더더욱 없었다. 그런 나의 어린 시절의 놀이터이자, 수영장이자 아이스

링크가 바로 하천이었다.

몇 시간씩 줄을 서서 기다릴 필요도 없었고, 비싼 돈을 주고 입장권을

살 필요도 없었으며, 멋진 수영복도 필요하지 않았다. 무더운 여름 날씨

에 치질때면 언제나 우리 동네 개구쟁이들은 마을 앞의 하천으로 달려

갔다. 물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천연 수영장으로 말이다. 그때는 부끄

러운 것도 없었고, 주위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었다. 하천 옆의 모래사장

에 옷을 던져버리고, 우리는 그 천연 수영장으로 몸을 던졌다. 절벽 위에

올라가 다이빙을 하고, 물 속에서 누가 오래 숨을 참는 지로 우리의 골

목대장을 뽑곤 했다. 크게 숨을 들어 마시고 물 속에서 숨을 참고 있으면

, 물 속 세상의 신기함과 아름다움이 한 눈에 들어왔다. 이름 모를 수많

은 물고기들이 뭐가 그리 바쁜지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있으며 얼마나

오랫동안 거기에 머물렀는지도 모를 돌들이 내게 말을 걸어오는 것만

같았다.

그런 여름 천연 수영장에도 안전요원이 존재했다. 훈련을 받은 안전

요원이 아닌, 바로 우리 개구쟁이들의 할머니들이었다. 지금은 이 세상

에 계시지 않는 나의 사랑하는 할머니는 여름이면 너무나 무섭게 바뀌

셨다. 할머니께 놀러간다고 말하면 언제나 할머니는 '기찬아~~ 물에 가

지마라! 물에는 물귀신이 살아서 어린애들만 잡아간다. 알았제?'라고

말씀하셨다. 그럴 때면 나는 언제나 큰 목소리로 '네~~~'하고 대답하고

는 하천으로 한걸음에 달려갔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나는 순수했고,

또 조금은 바보였던 것 같다. 할머니의 '물귀신' 얘기에 조금은 겁이 났지

만, 천연 수영장의 투명한 유혹이란 할머니의 무서운 얘기보다 더 강렬

하고 매혹적인 것이었다. 그래도 우리 할머니가 어떤 할머니인가? 산전

수전을 다 겪으신 그런 분 아니신가? 할머니도 당연히 내가 강에 물놀이

간다는 사실쯤은 알고 계셨다. 왜냐하면? 물놀이를 갔다 오는 날이면

언제나 내 몸에서는 비린내의 민물냄새가 났었기 때문이다. 나는 할머니에게 아단맞는 것이 싫어서 몰래 비누를 챙겨서 주머니에 넣고 강으로 가곤 했다. 욕실에 비누가 하나 없었지만, 그 날은 바로 내가 강에 가는 날이기 때문에, 할머니는 언제나 강으로 나를 찾으러 오곤 하셨다. 저 멀리서 할머니의 모습이 보이면 나는 할머니가 찾지 못하게 아주 깊은 곳으로 헤엄을 쳐 절벽 아래에 숨곤 했다. 할머니는 한참동안 나를 찾기 위해 여기저기 둘러 보셨고, 또 한참동안 내 이름을 부르시다가 지쳐서 집으로 돌아가곤 하셨다. 얼마나 어린 손주가 걱정이 되면 아픈 다리로 거기까지 걸어오셨을까?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죄스럽고 미안한 마음뿐이다. 그때는 정말이지 철없던 내가 아닐 수 없다.

우리 집 앞 하천은 정말이지 나의 어린 시절의 선생님이었다. 수학공식이나 정형화된 지식이 아닌 마음으로 보고 느끼는 법을 가르쳐준 선생님이었다. 비가 많이 내려 누런 큰물이 내려가는 날이면, 동네 어른들은 모두 모여서 '강이 제방을 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 하셨다. 그런 날이면, 나도 마치 동네의 어른인 마냥 그 분들의 틈에 끼여 모든 것을 삼켜버릴 듯한 그 강을 바라보곤 했다. 그때 나는 처음 알았다. 자연의 힘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강물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가축들이며, 어디서부터 떠내려 왔는지 모를 수많은 가구들과 집기들을 보며 두렵기도 하였다. 그래도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예전보다 더 맑고 투명한 물이 햇빛에 반짝거렸다. 또 우리 집 앞 하천은 동네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좋은 휴식처였다. 어른들의 여름 행사는 대부분 강에서 이루어졌다. 우리들처럼 헤엄치며 노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물에 발을 담그고, 물고기를 잡으면서 부모님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고 그리워하는 것 같아 보였다. 반도를 가지고 강에서 잡은 물고기를 끓여 만든 초여탕은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도중에도 그 맛이 떠올라 입안에 침이 가득 고이게 만들어 버린다. 하천은 이렇듯 우리 동네 어른과 아이들 모두에게 꿈과 희망과 행복을 안겨주는 곳이었다.

여름날의 하천하면 떠오르는 한 아이의 얼굴이 있다. 그 날도 우리는 하천에서 열심히 헤엄치며 정신없이 놀고 있었다. 하지만 그 날은 비가 많이 내리고 얼마 지나지 않은 날이어서, 물살도 강했고 황토 물이었다. 이런 날은 헤엄치기 보다는 급류타기하기에 안성맞춤인 날이었다. 작은

배구공을 가슴에 안고 급류에 물을 맞으면, 마치 미지의 세계로 떠나는 탐험가가 기분이었다. 나는 급류타기의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다. 내 앞의 아이가 급류에 몸을 맡겼다. 그런데 갑자기 배구공이 하늘로 솟아오르고, 아이가 사라졌다. 순간 나는 고민을 했다. 그 고민의 짧은 순간이 아주 길게만 느껴졌다. '구할 것인가? 아니면 모른 척 할 것인가?' 머릿속이 복잡했다. 그리고 어른들의 말이 떠올랐다. '물에 빠진 사람 구하면, 같이 죽는다.'는 말. 무서웠다. 하지만 그 아이의 얼굴이 떠올라, 난 크게 숨을 쉬고 급류 속으로 뛰어들었다. 급류속의 바닥에서 그 아이를 찾았다. 그 아이의 몸을 잡고, 있는 힘을 다해 급류 속을 헤엄쳐서 빠져나왔다. 난 자랑스러웠다. 한 아이의 목숨을 구했다는 사실이 나를 너무나 뿌듯하게 했다. 하지만 나는 가족들에게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다. 얘기를 하는 순간, 나는 혼날 것이 당연했기 때문에 말이다. 그렇게 나는 조용하고 비밀스러운 영웅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었다.

또, 추운 겨울이 오면 하천은 아이스링크로 바뀌었다. 강에 얼음이 얼기 시작하면 아이들은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직접 만들어준 썰매를 들고 강으로 모였다. 모두들 자기 것이 제일 좋으면서 싸우기도 하고, 부러워하기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추운 겨울 매서운 바람과 살을 에는 듯한 추위도 우리의 썰매 앞에서는 문제 되지 않았다. 그 한겨울 추위에도 등에 땀이 흥뻑 젖을 때까지 썰매를 탔으니 어린시절의 나는 정말이지 놀기 좋아했나 보다. 그렇게 반나절 놀고 나면, 동네의 어른들이 얼음을 깨고 잡아 놓은 물고기를 장작불을 피워서 구워 주셨다. 그냥 소금으로만 간을 하고 불에 시커멓게 그을린 물고기를 먹고 있으면 얼굴은 어느새 검은색으로 변해 있었고 서로의 얼굴을 보며 한참을 웃곤 했다.

이렇듯 어린 시절의 나는 하천과 함께 자랐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이다. 1월부터 12월까지 하천은 나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보여주고 느끼게 해주었다. 나의 놀이터가 되어 주었고, 나의 수영장이 되어 주었고, 나의 아이스링크가 되어주었으며, 내가 아무에게도 못한 고민들을 한없이 말해도 들어주고 또 들어주었던



## 독자의견



River & Culture



고마운 하천이었다. 그런 소중한 나의 친구이자 나의 상담자인 하천이 예전의 모습을 점점 잃어가는 것 같아 안타깝다.

세상이 발전하고, 빨리 변화하면서 우리는 개발이라는 논리 앞에 보전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잊어버리고 살았다. 아니 알면서도 살기에 바빠서 조금은 등한시한 것 같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보전이라 것에 눈을 돌리고 있다. 조금은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그래도 환영해야 할 것이다. 더 늦기 전에, 자연에 대한 소중함을 깨달았더니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우리에게 어머니처럼 주지만 했던 하천에게 이제는 우리가 되돌려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가 바꾸고 변화시키기 전의 그들의 모습으로...

어린 시절 우리 집 앞 하천에서 물장구치며, 놀던 어린 아이가 어느덧 대학생이 되었다. 키도 컸고, 코밑에 수염도 깎을 만큼 어른이 되었다. 하지만 나에게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운 추억을 안겨준 하천은 내가 어른이 된 만큼 그렇게 많이 간실하지 못한 것 같다. 가끔씩 시골집에 내려가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천은 많이 아픈 것 같고, 많이 아픈 것 같다. 과거 자신의 모습을 이제는 돌려 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다. 자식에게 모든 걸 주고도 더 주고 싶어 하는 어머니의 사랑처럼, 하천도

우리 인간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었고, 지금도 주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하천에게 감사하기보다는 우리 인간의 편의를 위해 하천의 모습들을 자꾸만 우리 마음대로 바꾸려고 한다.

매년 반복되는 홍수 피해를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우리는 원래의 하천과 어울리지 않는 거대한 콘크리트 제방들로 그들의 숨통을 막고 있다. 우리의 입장에서가 아닌 하천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았다면, 그 하천 속에 살고 있는 수많은 생물과 무생물을 한 번 더 생각했다면, 조금 더 그들이 원하고 바라는 대로 우리가 해줄 수 있지는 않았을 까라는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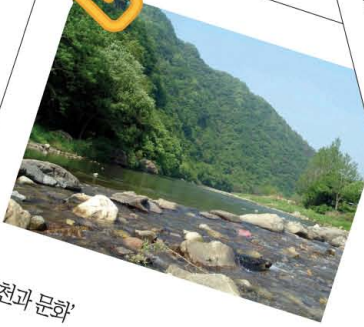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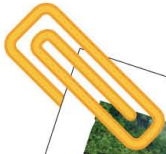
이제 시작해보자. 늦었다고 말하기에 앞서, 돈이 많이 든다고 말하기에 앞서, 인간의 편의를 위해 그들이 원하지도 않는 개발을 하기에 앞서, 이제는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눈높이에서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어야 할지를 생각해보자.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워서 지치고 아픈 그들에게 과거의 힘찬 흐름과 행복했던 그들의 모습을 다시 찾아주자. 또 지금 자라나고 있는 어린아이들에게 그리고 앞으로 자라날 우리의 아이들에게 딱딱한 수영장의 타일이 아닌, 인공으로 만들어진 아이스링크가 아닌, 콘크리트 옷을 입어버린 하천의 모습이 아닌 맑은 시냇물이 흐르는 원래 모습의 하천을 선물하자. 아주 많은 시간이 흐른 후, 수많은 아이들의 가슴속에 나와 같이 하천에 대한 즐겁고 행복한 추억들을 가질 수 있도록 바란다. 이제부터 시작해보자. 더 늦기전에... 🌊

회원 상호간의 하천관련 선진기술정보의 교류와 정부의 정책방향 등 현안사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 공유하는 정보지 역할뿐 아니라 하천을 아끼고 사랑하는 문화를 창조하고 발전시켜 온 국민의 마음에 자리매김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천과 문화」를 발행하여 우리나라 하천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하천협회' 관계자 여러분께 박수를 보냅니다.

다만 우리는 하천전문가라기 보다는 수자원전문가이기에 하천협회의 이름에 서처럼 '하천'에 얽매이지 않는 모습을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 수자원의 중요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댐분야는 물론이고 요즘 대두되는 기상이변이라든지 기상의 경년변화와 같은 기상관련 분야와 함께 산사태, 환경, 수자원관련 법 및 제도 등 수자원과 관련한 광범위한 분야로 우리의 영역을 넓혀갔으면 합니다. 또한 동강댐이나 한탄강댐과 같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문제를 심도있게 다루어 본지의 발행목적에서 밝힌 것처럼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정부의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수자원전문가들이 각자의 이해관계를 떠나 허심탄회하게 토론함으로써 지식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토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

심 동 필 | 현대엔지니어링(주) 수자원부 차장





'하천과 문화'

하천은 거대한 물순환 고리의 극히 일부분을 담당하지만, 가장 많은 시간을 인간과 함께 울고 웃으며 보냅니다. 그래서인지 개발이란 이름 하에 많은 훼손이 이루어졌고, 최근에는 그 활동들을 되돌아보고 반성하는 새로운 복원의 노력과 친 환경적 하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천 복원에 대한 노력의 생생한 현장과, 하천은 인류와 같이 있어온 것이 아닌 인류를 존재할 수 있게 만들어준 생명과 문화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하천과 문화'를 통해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모두에게 적극적인 하천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소식과 정보 부탁드립니다. 🌐

백승환 | (주)도회종합기술공사 수자원부

한국하천협회에서 장간호를 보내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독자는 「하천과 문화」라는 제목에 어울리는 편안한 표지선택과 수자원 분야내의 다양한 분들의 좋은 글들을 많이 올려주신 편집위원님과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회원님들께 수자원 분야에 종사하는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독자의 입장에서 장기적으로 한국하천협회의 발전과 「하천과 문화」라는 협회지에 대한 더 많은 기대를 품으면서 협회지를 읽어본 제 짧은 소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코리아특급 메이저리거 박찬호, 골프신동 미셀위, 그리고 아시아의 영웅 박지성등의 운동선수들을 좋아합니다. 덕분에 축구경기라면 홈팀이 지고는 못살고 아직 야구장도 구경 못해봤지만 국내 프로야구중계나 골프채널에도 한번씩 기웃거리게 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걸 보면, 우리시대의 신드롬(syndrome)은 매체를 통해 그분야를 얼마나 소개하느냐 보다는 '얼마나 많은 관심을 이끌어 내는가'에 중점을 두는 것이 관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독자는 창간호에 실린 글을 보면서 「하천과 문화」라는 좋은 책이 어떠한 독자를 겨냥하여 어떠한 글들이 게재될지도 기대됩니다. 🌐

부디 독자를 겨냥한 좋은 글들을 부탁드립니다.  
이태영 | (주)도회종합기술공사 수자원부 대리